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4월 5일(금)  
..(음력 3월 1일)..

Пятница  
5 апреля 2019г.  
№ 13(11683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아리랑>무용단 <재능>경연대회 부문에서 우승

지난 주에 사할린국립대가 주최한 <재능>예술창작경연대회의 <51+>연령 그룹 중 <무용>부문에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이 우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4년에 창설된 <아리랑>무용단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소속으로 돼 있다가 2016년에 사할린한국교육원 지원을 받고 현재는 주한인협회가 운영하는 한인문화센터 소속으로 돼 있다. 무용단 단원은 9명이고 주에 1회 연습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아리랑>무용단은 부채춤을 선보여 1등 했다.

▲ 왼쪽으로 부터 5번째 박영자 단장.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주지사 대행, 러시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모스크바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권한 대행이 러시아 연방 교육부 올가 와실리에와 장관과 만나 주내 교육시설 건설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리마렌코 대행은 사할린에 새로운 교육기관 건설하는 데에 연방 정부의 공동 재정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주에 학교 및 유치원 신설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이에 따라 2025년까지 42개 교육시설을 건설할 것이며 1.5세-3세까지의 유아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 갖추어진 건물을 건축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유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도 지원할 것이다.

주지사 대행은 교육 분야의 주요 과제는 학생들의 실력과 재능을 실현시킬 새로운 형태의 학교 건립에 있다고 보고 교육시설에 있어 현대적 필수 여건과 최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남에서는 인적개발 문제도 논의되어 러시아 교육부의 협조로 사할린 지역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에 강사로 우수대학 교수진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 사할린주 스포츠시설 건설을 위한 연방기금 확대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사할린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은 러시아연방 스포츠부 파벨 콜로브코브 장관과 만나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스포츠 분야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리마렌코 대행이 스포츠 제반시설 건설에 연방 정부의 조달금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스포츠부 장관이 동의했다.

올해 10개의 새로운 스포츠시설을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우글레고르스크, 노글리키, 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에서 건설할 예정이다.

14개 시설에 대한 기획 견적을 작성 중이고 올 연말까지 공사 착수를 할 계획이다.

콜로브코브 장관은 사할린의 가장 유망한 스포츠 기획은 전국 동계스포츠 아동캠프 설립이라 보고 있다.

이 캠프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근교에 자리한 <위스토크>교육훈련시설을 바탕으로 할 계획이다. 이곳은 해마다 전국 각지의 어린 선수들 약 5000명이 휴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는 전국적 캠프의 개념으로 예산견적을 작성 중에 있다.

"우리에게는 스포츠가 미래입

니다. 우리가 청년들과 연금자들을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스포츠 산업은 관광개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미 극동의 가장 큰 스키 리조트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방면에서 연방스포츠부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새로운 성과에 도달하겠습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이 강조했다.

주지사 대행은 사할린주 내 각 구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 여러 종목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여 사할린주가 전국 스포츠 관광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고 전문선수들의 양성지로 조성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이미 사할린주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예산이 67억 루블리로 증가되어 제1차 <아시아의 아이들> 국제동계스포츠게임이 진행되었고, 주내에서 새로운 주요 스포츠 대회 개최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 <포베다>조직위원회, 전승절 기념행사 논의

지난 3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승리>조직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를 연 세르게이 부드킨 부지사는 대조국전쟁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베다>조직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는 조국 수호자들의 업적에 대한 추억을 기리는 것이다.

부지사는 대조국전쟁 74주년 기념과 남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 74주년 준비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기념행사 진행에 대해서만 아니라 대조국 전쟁 참전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사할린주에서 대조국전쟁 참전자와 참전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 350명에 게 무료로 주택을 제공했다고 상기시키며 올해에 주내에 일련의 전승 기념물을 재정비하고 문화유산으로서 추념 보전 활동에 연간 재정지원을 책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74주년 행사 진행에 대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나탈리아 쿠프리나 부시장에 따르면 4월 26일 <2019추념의 교대>

전국 애국군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이날 <슬라와>광장에서 공식집회가 열리고 행사는 오토바이 및 특별 차량의 행진으로 마감된다. 오토바이 행진은 아나와와 흠스크까지 갈 것으로 전해졌다.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학교들에서는 대조국전쟁을 주제로 하는 수업, 행사, 군사 스포츠게임, 전시회와 경연대회 등이 진행된다.

5월 8일은 체호브센터에서 대조국전쟁 참전 원로들을 위한 기념공연이 있고 같은 날 <게오르기 리본>나누기 행사를 시작한다. 게오르기 리본은 슬라와광장, 포베다광장과 체호브센터 앞마당에서 나눌 예정이다.

주요 행사는 5월 9일 펼쳐지는데 레닌 광장에서는 군사 장비 전시회가 열리고 포베다 광장에서는 전통적인 군사 퍼레이드와 <불멸의 연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포베다 광장에서 시베리아국립합창단 공연이 있는 후 불꽃놀이로 마무리한다.

## 새고려신문

##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크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 40여년 한인성을 갖고 지내는 러시아 여인

지난 3월 25일 러시아에서 문화 분야 근로자들의 날을 기념했다. 이날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 알레리리마렌코가 <사할린주 명예 문화근로자> 칭호 증서를 수여한 사람 중 한국 성을 가진 분이 있었다. 강스웨틀라나 니콜라예브나는 완전한 러시아인이다. 사할린 출신도 아니다.

필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을 다녀간 강 관장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 도서관 일에 45여년을 바쳐

1974년에 쿠르스크주 오보노 도서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사할린 스미르니흐도서관으로 파견되었다. 당시 그녀는 21살이었다. 올해는 사할린에서 산 지 45년이 된다. 대륙생활보다 더 긴 세월을 사할린섬에서 보냈다. 일반 도서관원으로 시작한 스웨틀라나는 차차 승진하면서 1987년에 스미르니흐 중앙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미 32년째 이 직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스웨틀라나 니콜라예브나는 사는 게 재미있다고 한다.

스미르니흐구역 중앙도서관은 스미르니흐중앙도서관, 스미르니흐어린이도서관, 그리고 5 마을(페르워마이스크, 포베지노, 오노르, 로시노, 부유 클리)의 지점으로 구성돼 있다.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들은 특히 작은 도시와 촌에서 문화생



활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꽤 많이 하고 있다.

옛날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해야 했기 때문에 일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현재는 각 도서관이 자체 발전을 위한 방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과 책? 사람들이 무엇을 더 좋아할까? 무엇이 더 유리할까?' 강스웨틀라나는 "인터넷으로 책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독자 대다수가 인쇄 잉크의 냄새를 풍기는 종이책을 더 좋아합니다."라고 했다. 그 잉크 냄새 때문에 도서관 일을 그만둔 한 전문가가 다시 도서관에 취직한 얘기까지 들려주었다. 이 젊은 도서관원은 도서관이 전공이 아니었다고 한다. 도서관원의 임금이 낮아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그는 도서관을 그만두고 유치원 교원으로 취직했

다. 그러나 책 냄새, 잉크 냄새가 항상 그를 뒤따랐다고 한다. 노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도서관원으로 복귀했다.

필자의 생각에는 강스웨틀라나 니콜라예브나에게도 도서관의 일이 천직인 것 같다. 그는 한 번도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도서관 얘기를 많이 했다.

현재 디지털화시대에 도서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독자들이 도서관을 계속 찾을 것인지... 고민거리가 많다.

필자는 스미르니흐구역 도서관시스템의 사이트에도 들어가보았다. 생각보다 괜찮다.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안내 프로그램도 잘 돼 있다. 2002년에 첫 컴퓨터가 생긴 후 도서관 직원 한 처녀가 첫 사이트를 만들어보았다고 한다. 아마 주어진 직원 오빠들이 이 방면의 전문가여서 계속 상담을 받아 사이트가 탄생되었다고 했다. 물론 그동안 이 디자인이 여러 번 업그레이드되었고 지금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전문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스미르니흐구역 중앙도서관에는 도서관전문가만 35명이 일하고 있다.

전 구역독자들은 도서관들을 1년에 10만4000번 찾았다고 한다. 중앙도서관 독자 수는 약 4000여 명이다.

2015년에 사할린문화부가 스미르니흐도서관들을 위해 비블리오부스(도서버스)를 구입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 플러스 교통이다.

도서관 측에서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 관장에 따르면, 도서관원들이 이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답아 하고 있다. 책과 최신 장비로 설치된 도서버스는 매일 시간표를 발표하고 매일매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도서관 일은 계속 자질 향상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강스웨틀라나는 매일매일 공부가 된다고 말한다. 통신으로 하바롭스크문화대학을 졸업하고 직원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쓴다. 물론 다양한 연수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도서관 운영, 기술 문제, 인쇄와 관련 사업, 도서전문 사업 등등 해야 할 일은 항상 많다.

## 한인과 결혼하여 행복

강대운(무용, 연출, 문화회관 과장을 역임 한 바 있음), 남편이 된 사람은 문화분야에서 활동했다. 물론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애정 감정을 가진 젊은이들은 실제로 1977년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1979년에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강대운 씨와 그의 가족 모두가 무국적자였기 때문이다. 1979년에 소련국적을 취득 후 혼인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처음 인사하러 시집에 간 스웨틀라나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고 한다. 특히 밥상에 나온 음식이다. 미래의 시부모는 러시아인 며느리를 반대하지 않았다. 특히 시아버지가 처음 스웨틀라나 며느리를 봤을 때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스웨틀라나는 시부모님이 두 분다 좋은 분이라면서 시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다. 문화적 차이가 많았지만 서로 양보하고 평화롭게 지냈다고 한다. 스웨틀라나는 지금도 한식은 만들지 못한다. 남편과 두 아들이 한식을 잘 하니까. 자신은 잘 먹지만 한다며 스웨틀라나 관장이 웃었다. 대신 시집에 큰 일을 있을 때마다 자기가 설거지를 맡았다고 했다. 큰 며느리(그분도 역시 러시아인)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웬지 스웨틀라나만 믿고 설거지를 시켰다고 했다. 러시아 전(블린치키), 파이 등을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거의 주

말마다 며느리를 찾아 함께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그때 많은 얘기도 나누었다. 한국에 영주귀국하고 그곳에서 얼마 살지 못한 시어머니의 빈 자리가 느껴진다고 스웨틀라나 니콜라예브나는 고백했다.

그의 부모는 한인 사위가 소련국적을 취득한 후 처음 사위를 보았다고 했다. 러시아 쿠르스크 근처 농촌에 살던 이들은 한민족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사위가 바로 <마마, 빠빠>로 불렀더니 마음에 속 들었다고 한다. 사위 사랑은 넘친다. 지금도 스웨틀라나(아버지는 이미 사망)의 어머니가 전화로 통화할 때면 먼저 사위 안부부터 물어본다고 한다.

스웨틀라나의 부모는 사할린을 딱 한 번 다녀갔는데 1981년에 있는 필리스 태풍 이후였다. 딸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할린에 온 부모님은 감자와 버터 등을 가져왔다. 그때 사돈들(시아버지는 이미 사망)이 처음 인사를 했는데 많이 친해져 서로 반갑게 잘 지냈다고 한다.

지금도 다른 민족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스웨틀라나는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다고 말한다.

(배순신 기자)

# 이모저모

## <사할린의 불꽃> 아동무용단 중국무대에서 우승

<사할린의 불꽃> 아동무용단이 중국 무용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중국의 <즐거운 바람> 축제는 전통적으로 지린성 옌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10회 기념축제에 중국 및 러시아에서 3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축제경연은 문화적 전통을 교류하려는 데서 특별히 조성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이르쿠츠크, 콤소몰스크-나-아무레, 마가단 등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들과 극동지역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무용술을 펼쳤다. 중국 학생들은 중국의 민속춤을 보여주었다.

<사할린 불꽃> 무용단은 전통민속춤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구두굽의 이야기> 춤은 음악 없이 발구름과 구두굽의 리듬으로 이야기를 표현해 특별히 환호를 받았다.

30명으로 구성된 <불꽃> 무용단은 대무용단의 일부로서 이들은 무용의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전체 무용프로그램을 구성해 성공적으로 펼쳐보았다.

지난해 <사할린의 불꽃> 무용단은 모스크바 무용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은 바 있다.

## «Сахалинские искорки» покорили китайскую сцену

Юные танцоры ансамбля «Сахалинские искорки» заработали гран-при китайского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конкурса. Фестиваль «Веселый ветер»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одится в городе Янцзы северной провинции Дзялинь.

На десятом, юбилейном состязании было почти триста участников из Китая и России. Фестиваль создали специально, чтобы обмениваться культур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Творчество представили ребята из Иркутска,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Магадана,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ети Поднебесной показали композиции в китайском народном стиле. «Сахалинские искорки» славятся народными постановками. Особенный восторг вызывает «Каблучный разговор» — танец без музыки, рассказанный языком топота и каблучков.

Делегация «Искорки» — группа из тридцати человек — только малая часть большого ансамбля. Они привез-

ли целую программу из разножанровых танцев, и все они имели успе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скорки» привезли гран-при с московского конкурса.

## 사할린 청년, 아침 버스 승객들에게 도너츠와 차 대접

4월 2일 아침, 27세의 사할린 청년 아르쭈이 아침 시간 버스 승객들에게 도너츠(베로즈키)와 차를 대접했다.

아르쭈이는 감자와 야채가 든 도너츠 50개를 카페에서 주문해 날날이 데워 포장하고, 차를 담은 보온병 4개와 종이컵도 준비해 아침 시간 버스에 올랐다. 낮선 승객들 앞에서 친절한 웃음과 함께 도너츠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상하게 보는 승객, 거부하는 승객, 누가 보내서 왔는지, 무얼 전전하냐고 묻는 승객도 있었지만 "그냥, 스스로 하고 싶었다."는 스스로없는 대답에 승객들도 미소와 함께 고마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렇게 몇 대의 버스를 갈아타며 그는 승객들에게 대접했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다. 2013년 사할린예술전문대학을 졸업한 아르쭈이는 현재 대중문화 부문 감독으로 활동, 통신으로 하바롭스크대학교육을 받고 있다. 아르쭈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의 에너지를 받고, 좀더 자주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단순한 미소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Молодой южносахалинец угостил чаем и пирожками пассажиров утренних автобусов

Утром 2 апреля 27-летний южносахалинец Артем угостил чаем и пирожками пассажиров утренних автобусов.

Артем заранее заказал в кафе 50 пирожков с картошкой и капустой-мясом, разложил выпечку в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упаковку, запасся четырьмя термосами с ароматным чаем и сел в утренний автобус. Вместе с пирожками и горячим чаем он подарил незнакомым пассажирам добрую улыбку. Некоторые пассажиры смотрели на него настороженно, словно на сумасшедшего. Некоторые отказывались от угощения, некоторые спрашивали «От кого». Услышав, что «Ни от кого, сам по себе», люди начинали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улыбаться в отве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Артем побывал в нескольких автобусах. О том, как совсем за небольшие деньги можно порадовать окружающих, был снят видеосюжет, который впоследствии был выложен в "Инстаграм".

В 2013 году Артем окончил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сейчас работает режиссером культурно-массового отдела и заочно получает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Хабаровске. Он будет режиссером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и праздников.

— Я советую людям чаще улыбаться, делиться своей энергией,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Понятно, у всех какие-то свои мысли, но часто простая улыбка может все изменить, — говорит Артем.

## <사할린 장수> 기획에 연습자 5000여 명 참가 가능

4월 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의 장수> 새로운 사회적 기획이 시작되었다. 정년퇴직을 한 65세 이상의 연습자들은 스포츠, 보건 및 문화오락 행사에 무료로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현재 <사할린 장수> 기획 참가자들은 체육관과 운동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따뜻한 계절에는 핀란드식 산책을 익힐 수 있고 12월에는 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 스키를 탈 수 있다.

기획의 일환으로 연습자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7개 문화기관에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즉, 체호브센터, 주 필하모니아, 사할린 동식물원, 주 향토박물관과 주 미술박물관, <사할린섬> 체호브 책 박물관과 <콤소몰레츠> 영화관 등. <사할린 장수>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카드로 고령의 주민들은 무료로 전시회, 공연과 연극을 감상할 수도 있다.

무직의 연습자들 중 모든 희망자를 위한 새로운 기획에 참가 연령은 65세부터다. 이 유익한 기획에 총 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를 위해 희망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푸르카예브거리 80번지에 위치한 사할린주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В проекте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более 5 тысяч пенсионеров

1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новы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8면에 계속)

### <전통의 계승자>북방소수민족 청소년 예술창작축제 개최

지난 주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5회 <전통의 계승자>주 북방소수민족 청소년예술창작축제가 진행되었다.

2006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 축제는 이후 3년에 1번 진행된다.

올해 이 축제에는 주내 6개 지방자치체를 대표하는 민속단들과 어린 미술가들이 출전했다.

축제의 목적 중 하나는 민족전통을 전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민속단들과 어린 전통공예예술인들에게 이 전통을 가르쳐주는 장인들이 필요하다.

사할린축제에는 사하공화국(야쿠치아)에서 <술로전까>민속무용단이 초대되었다. 이들은 공연외에 공예장식품을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 28일에는 체호브<사할린 섬> 책 박물관에서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유·청소년들의 공예전시회가 열렸고 29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청소년창작회관에서 민속단들을 위주로 하는 공연이 진행되었다.

30일에 있는 갈라공연에서는 축제 수상자 이름들이 발표·시상되었다. 민속단 중에서 1등은 <술니쉬코(해)>민속단(오하구역)이 했다.

전시회는 4월 7일까지 열려 있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취재: 이예식 기자)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수라(修羅) / 백석

거미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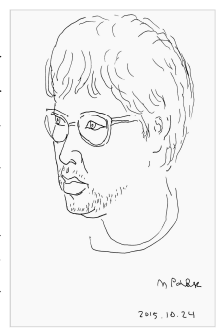
언제인가 새끼거미 끌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찢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밤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찢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 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매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더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히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려만 하고 슬퍼한다.

“저 작은 새끼거미가 과연 저 찬 밖에서 생을 건딜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나 보고싶어 했을 엄마와 누나나 형을 만났을까요? 제목이 참 무섭습니다. 수라(修羅) 라니요. 수라는 아수라, 즉 지옥의 한 형태일 텐데. 제목을 곱씹을수록 우리 인간이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이 떠오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또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잔혹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의 아픔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겠지요. 멀리 갈 일도 아닙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지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럼없는 것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건 엄연히 다름지언데, 이에 대한 구분이 약해 결국 소소한 문제를 낳기 마련입니다. 저는 비교적 고양이처럼 거리를 잘 두는 편입니다만, 저 역시 누군가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지는 않았나, 반성과 함께 창을 여는 아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심할게요.”



서울에서 허진원. 2019.04.02.

###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 · (2) 막막한 강제징용 희생자 가족]유골이라도 찾고 싶은데... 그렇게 어렵나"

(전호의 계속)

1943년생인 신윤순(76·여)씨는 아버지 신경철씨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1943년 러시아로 강제 징용간 아버지가 끝내 모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칠십 평생 아버지를 찾아 해맨 신씨는 지난 2013년에야 겨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다.

신씨는 "인천 동구에 1950년에 아버지와 같이 벌목장에서 일하신 분이 영구 귀국해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분으로부터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곧장 러시아로 갔다"고 말했다.

이후 수소문 끝에 러시아 포르나이스크(Pornaysk) 근로연금 공단에서 아버지 신씨가 1949년에서 1953년 사이 근무한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신씨는 "49년부터 51년까지 근무했고 6개월 휴가를 갔다는 기록을 찾는데 현지에서 꼬박 20일이 걸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은 53년 3월 30일 휴가를 갔다는 것이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그 정도였다"고 했다.

신씨는 간절히 정부의 도움을 원했지만, 이런 민원을 받아줄 창구를 찾지 못했다. 결국 신씨는 지난해 4월부터 매주 하루씩 청와대 앞에서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씨와 같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5년 문을 닫은 정부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 항쟁기 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교 협상을 할 창구가 있어야 국외에서 숨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원을 조회하고, 기록을 확인하는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을 원하는 건, 비단 신씨 뿐만이 아니다. 양주에 집단으로 거주 중인 러시아 영구 귀국 동포들도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통한 피해 조사와 지원을 원하고 있다.

러시아에 거주하다 지난 2014년 영구 귀국한 김정희(73·여·양주시 옥정동)씨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이제 70대 고령이 됐다. 더 늦기 전에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통해 명확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 · (2) 정부기구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 목소리] 조사에 외교창구역까지... '상시기구화' 재운영 필요

11만건 피해지원 34만건 자료 성과 2015년말 폐지... "한시적 기구 한계 소규모 조직으로 유골 봉환 작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이 본격화된 건 지난 2004년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합의에 따라 한일 정부의 유골 봉환 작업이 시작됐다.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무총리산하 정부기구로 꾸려져 지난 2015년까지 22만 건 이상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접수해, 11만건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34만건의 피해조사 자료를 생산해 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아직 송환하지 못한 유골이 국외에 방치돼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역사와 역할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2004년 발족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2008년 발족한 '국외희생자지원위원회'를 합쳐 설립된 조직이다.

한때 12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며 피해 조사는 물론 현지 진상조사, 위로금 지급 등의 역할을 했다.

국외에서 숨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을 봉환하기 위해선 외교 창구가 필요했고, 조사 기능을 겸한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정확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을 펼친 것이다.

2010년부터 2년 간 활동을 펼친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4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했으나 결국 2015년 12월을 기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더이상 위원회를 연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관련 단체들은 당시 '위안부 합의' 등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우호적인 외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폐지에 반대하며 3만5천여 명의 반대서명 운동을 벌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일본의 시민단체까지 대일항쟁기 위원회 폐지에 반대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장 대신 폐지를 택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 ■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은 국격의 문제"

=대일항쟁기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인환 전 건국대학교 교수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분개했다.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박 전 위원장조차 보수 정권이 단행한 위원회 폐지가 옳은 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한시적 조직이었다는 것이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문제였다. 연장을 통해 활동을 이어갔지만 태생적인 한계는 분명했다"고 말했다.

또 "유골 봉환을 정확히 하려면 유전자 검사도 거쳐야 한다. 사망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나 매장된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유골 봉환에 국가 기구인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조사 자료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조직 대신 유골 봉환만을 위한 10명 안팎의 소규모 상시기구화해서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위원회 부활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격의 문제"라면서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한시기구가 아닌 상시기구화해서 유골 봉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면에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Этнос" получил гран-пр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Цветок мугунхва в Сеуле"

С 24 по 31 марта в Корее проходил X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Цветок мугунхва в Сеуле". Солисты и ансамбли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завоевали главную награду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 каждый в своей номинации стал лауреатом I степени, а школе присудили диплом Гран-пр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ученики и коллективы заслуженных педагог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нтины Миловой и Елены Баранниковой. Солисты-домристы с концертмейстером Юлией Плотниковой покорили жюри конкурса многообразием звуковых эффектов извлекаемых из трех струн, а солисты-баянисты — легкостью исполнения пассажей и осмысленной взрослой игрой. Слаженная и техничная игра квартета домристов и ансамбля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грамотно подобранный репертуар, а также неустанный труд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ринесли свои плоды.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из го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Южной Кореи.



Кроме конкурс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была очень насыщенная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Сахалинцы побыва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м музее, поднимались на знаменитую телебашню Намсан, посетили парк развлечений Everland, аквапарк, океанариум и шоу художников, сообщили в детской школе искусств "Этнос".

##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можно прис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gmail.com](mailto:vika131065@gmail.com),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67-85, 43-72-94.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0 мая 2019 г.

Призы:

Поездк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т.ч. путевк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летний языковой лагерь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Генхи на 2 недели).

Лауреаты награждаются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 Сахалинские кендоисты потренировались в Корее

С 21 по 29 марта шестнадцать спортсменов ассоциации кендо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и Холмск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трениров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кендо в городе Тэг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портсмены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о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поэтому команда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на две группы. Младшие проходили подготовку в команде Y.C.Team,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действующим чемпионом Кореи (среди школьных команд первой категории), а сам клуб

города Тэгу, обладателя седьмого дана Со Сон Хи.

Программа тренировок была предельно насыщенной и динамичной. Основной упор был сделан на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 командные поединки. Тренировки с соперниками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позволяют улучшить технику, нарастить скорость атак и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физическую выносливость. Данные УТС являются одним из этапов подготовки команды к участию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заплани-



дважды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Лучший клуб кендо Кореи" по версии ассоциации Кендо Кореи. Тренировки в этой команде проводили тренеры Ли У Чже (5 дан) и Ким Хё Соб (5 дан).

Спортсмены старшей группы тренировались в команде клуба Эд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экс-капита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оманд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круга Тальсо

рованных в 2019 году.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спортсмены посетили парк аттракционов E-World (Urban Land) в Тэгу и музей военной славы в Сеуле.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домой команда продолжит подготовку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которы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сообщили в ассоциации.

##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готовится к совместному концерту с корейскими ребятами

Вторая в этом году сесс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заверши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е организовал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центр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ОИМЦ). Юные музыканты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ирижера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оркестра Виктории Юхмановой готовятся к совместному концерту с корейски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мае.



На этой сессии ребята разучивали несколько нов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Па де де" и "Вальс цветов" из балета "Щелкунчик" Петра Чайковского.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концерта им предстоит сыграть три композиции с вокалистами.

"Думаю, что с вокалистами у детей больших проблем не возникнет, — отметила дирижер. — У многих уже был опыт тако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У невель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его чуть побольше. Другие дети игра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Корее "Призрак оперы" вместе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солистами. На мой взгляд, симфонии играть сложнее, чем вока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 сессию приехали 63 ребенка из Анивы, Невельска, Охи, Углегорска, Холмска, Шахтер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общили в СОИМЦ.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Ханое США передали КНДР документ со списком требований

В ходе саммита в Ханое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ризва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передать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и



ядерное топлив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29 марта агентство Reuters, ссылаясь на неизвестный источник.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на саммите Ким Чен Ыну был передан документ с таким содержанием. Кроме того, США озвучили широкие требования, включающи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реестра ядерных объектов, обеспечение условий наблюдения за ними, прекращение люб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язанной с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ой, перевод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ёных и других экспертов, работающих с ядер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в другие отрасли, выдача разрешения на осмотр ядерных объектов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и американскими делегациями. В вышеуказанном документ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полученном Reuters, также изложено требование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объекты, связанные с разработкой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 Иностранные СМИ активно освещают личность Адриана Хон Чана

Иностранные СМИ активно освещают личность проживающего в США гражданина Мексики Адриана Хон Чана, которого Национальная судебная коллегия Испании считает руководителем налёта на посольство КНДР в Мадриде, произошедшего 22 февраля. 27 марта агентство France-Presse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панский суд, сообщило, что Адриан Хон Чан в течение долгого времени вел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ходясь в США. В 2012 году человек под этим именем появлялся в эфире одног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абельного телеканала. В качестве главы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й компании он отвечал на вопросы слушателей о ситуации с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в КНДР и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беженцами. Согласно его резюме, он является соучредителем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беженцам, основанной в Калифорнии в 2005 году. В 2006 году, помогая бежать шестерым северянам, он был арестован в Китае и находился под арестом десять дней. В 2008 году Адриан Хон Чан выступил с лекцией о правах человека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в же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хва в Сеуле. В 2015 году он основал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Чосон,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ого направлена против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ежима Ким Чен Ына. Испанский суд выдал ордер на арест Адриана Хон Чана. ФБР занимается этим делом.

##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занял треть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версии Skytrax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занял треть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лучших аэропортов мир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британской консалт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ей Skytrax.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седьмой год подряд сингапурский аэропорт Чанги, а на втором - токийский Ханэда.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 в мире вошли также аэропорты Дохи, Гонконга, Мюнхена, Цюриха, лондонский аэропорт Хитроу, японские аэропорты Нарита и Тюбу. Рейтинг составлен на основе опроса 13 млн авиапассажиров-граждан 105 стран, которые оценивали 550 аэропорт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по множеству параметров, в том числе, регистрация, досмотр, паспортный контроль, получение багажа, пересадки на стыковочные рейсы, система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личие и ассортимент магазинов и ресторанов.

## 1 апреля в РК вступил в силу запрет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дноразовых полиэтиленовых пакетов

С первого апреля в крупных розничных сетях РК ввели запрет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дноразовых пластиковых пакетов в рамках усил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сокращению отходов и сохранению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По сообщ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логии, предлагать покупателям одноразовые пластиковые пакеты будет запрещено примерно в 2 тыс. крупных супермаркетов мелко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и и в 11 тыс. супермаркетов с торговой площадью более 165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рушители запрета могут быть подвергнуты штрафу на сумму до 3 млн вон или около 2.640 долларов. Однако пластиковые пакеты для влажных товаров, таких как мясные и рыбные продукты, неочищенные овощи и мороженое, будут разрешены. Запрет на одноразовые пластиковые пакеты был объявлен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 трёхмесячной отсрочкой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RKI)

## Руководителей Korean Air и Asiana вынудили покинуть посты

Практически одновременно обе крупнейшие авиакомпа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оказались обезглавлены. Вчера на общем собрании акционеры Korean Air отказались включить в состав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Чо Ян Хо, а сегодня добровольно сложил полномочия президент Asiana Airlines Пак Сам Гу, взяв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плохие финансовые показатели и прочие скандалы авиакомпании.

Пожалуй, самым знаковым и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событием стала ситуация вокруг Чо Ян Хо. Вчера на общем собрании акционеров он не смог набрать всего лишь немногим более двух процентов голосов. Компания Korean Air предложила продлить его полномочия в составе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авиакомпании, но не смог набрать до необходимых двух третей голосов совсем немного - два процента. В результате через свои акции сохранил влияние, но не вошел в совет директоров. СМИ Южной Кореи назвали это решение "личной оплеухой для Чо".

Тут надо учитывать, что Чо Ян Хо возглавляет крупн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нцерн Hanjin Group, в который входит в том числе и Korean Air, но вышло, что ему отказали в месте среди директоров одной из компаний холдинга. Судя по ситуации, сработал своего рода "кумулятивный эффект", так как к Чо и его семье накопилось слишком много претензий со стороны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Напомним, что две его дочери, которые занимали посты в компаниях концерна, успели оскандалиться в связи со своим хамским поведением. Старшая была фигуранткой шумевшего "скандала о соленых орешках", когда в конце 2014 г., используя свое положение в руководстве, заставила самолет Korean Air вернуться к аэропорту Нью-Йорка и высадила старшего бортпроводника. Младшая дочь Чо Ян Хо позже также попала на первые страницы газет, когда журналисты получили записи служебного совещания, где она закатила истерику подчиненным и кидалась стаканом с водой. Жену Чо Ян Хо также обвинили в грубости и хамстве в отношениях с прислугой, а сын его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падал в полицию за дебоши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Самого же Чо подозревают в уклонении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незаконном присвоении средств компани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полномочиями и прочих нарушениях закона.

Все это в итоге и заставило ряд ведущих акционеров Korean Air решить, что де-факто изгнание Чо Ян Хо из состава директоров послужит улучшению имиджа крупнейшей авиакомпании страны. В част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Кореи (ГПФК),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вторым крупнейшим акционером Korean Air, владея 12,45 процента акций, открыто заявил, что будет голосовать против Ч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осьбу самой компании продлить срок его полномочий. Недовольство скандалами было настолько велико, что инициативу ГПФК поддержали ряд других акционе-

ров. В итоге при голосовании Чо получил лишь 64,1 процента акций в свою поддержку при необходимых 66,66 процента. Против высказались 35,9 процента, то есть более одной трети, чего хватило, чтобы лишить Чо Ян Хо поста директора.

В Korean Air признали, что Чо лишился поста директора, но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он все равно буд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управлении, так как он занимает и другие посты в высшем руководстве. Тем не менее удар был очень сильным.

Также же обезглавленной оказалась вторая крупнейш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Южной Кореи - Asiana Airlines. Ее президент Пак Сам Гу сначала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крупнейшими акционерами, а затем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ил, что складывает все полномочия по руководству компанией. Он одновременно отказался и от всех постов в концерне Kumho Group, куда входит и Asiana. Пак взял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резкое ухудшение финансо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компании, а также за скандал, который разразился вокруг доклада аудиторов по поводу работы Asiana. Проверяющие озвучили очень нелицеприятные оценки, указав также н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нарушения в документации. Хотя ситуация с Чо Ян Хо и Пак Сам Гу разная, но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Пак учел скандал вокруг Чо и решил не доводить до положения, когда и его с позором "попросят" с постов.

Аналитики же отмечают, что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кандал вокруг Korean Air и Чо Ян Хо) стал новой вехой в истории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ы управления корпорациями. Хотя Чо и его семья через акции контролируют Korean Air, но акционеры показали, что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ни могут и готовы поставить на место даже самых высок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и основателей, чья власть в отношении "своих компаний" ранее часто считалась абсолютной. Интересно, что во главе этого движения акционеров ид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Кореи (ГПФК), который в 297 ведущих компаниях страны, включая таких гигантов как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SK Hynix, Naver, Posco и других, владеет пятью и более процентами акций, входя в число крупных акционеров. Отметим, что ГПФК попытался недавно лишить поста в совете директоров концерна SK Group президента концерна Чхе Тхэ Вона, указывая на то, что он ущемлял права акционеров и нарушал деловую этику. Чхе удалось остаться среди директоров, но вот в отношении Чо Ян Хо Korean Air ГПФК сумел убедить и других акционеров в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публичной выволочки для Чо". Отметим, что это решение было положительно воспринято на рынке.

Сразу после решения акционеров не продлевать срок полномочий Чо, акции Korean Air пошли вверх. Похоже, что в Корею и за рубежом сложился консенсус, что личные грехи Чо и его ближайш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уже стали слишком большой проблемой для компании, чтобы их игнорироват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спортив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УТЦ «Восток»  
пр-кт Мира, 501  
(вход свободный)

**14/04** начало в 10-00

Организатор: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спортив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 25 25 58  
✉ sakhalin\_ssireum\_federation  
✉ sakhalin@ssireum.ru  
🌐 www.ssireum.ru

Партнеры: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й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72-94.

## Более 1 тысячи участников прошли дистанцион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рка тестовых работ конкурсантов завершится 10 апреля. После этого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имена финалистов проекта, запуще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егистрацию на конкурс прошли свыше 1300 желающих стать частью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 4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Более 70 процентов из них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1176 претендентов получили доступ к дистанционному тестированию, которое проходило 29 и 30 марта. 1048 конкурсантов справились с тестовыми заданиями.

– Половина пути позади. Уже сейчас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казали, что неравнодушны к судьбе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Они не просто написали эссе и решили тест, они предложили ценные идеи по улучшению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 встречи с финалистами, – сказа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есты участников проверяются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ьной компьют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У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бравших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оценивается также эссе о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х для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проблемах, которое требовалось написать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Финалистов определяют эксперты федер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Лидеры России».

– Тем самым, исключается субъективность оценки 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держать определенных людей,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Наумов. – Конкурсанты на дистанционном этапе, конечно, мог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торонней помощью. Но впереди финал, а там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пройти еще один тест. На этот раз очный.

19 апреля на очном этап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желающие стать частью «Команды» пройдут контроль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и подтвердят свои знания в присутствии эксперт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конкурса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обращений и жалоб от участников на этапе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тестирования не поступало.

– Наша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сех конкурсантов.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будет оператив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апелляции, если такие будут. Это касается и результатов тестирования, и оценки эссе. Также мы с коллегами готовы пристально следить за проведением очн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 когда финалисты прие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масштабного кадрового проекта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22 апреля. В качестве наград молодые управленцы разделят 10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грантов по 1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и 15 грантов на реализацию волонтер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Также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т ре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ять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и бизнес-корпорациях.

Напомним, конкурс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Цель конкурса – сформировать высокоэффективную команду управленцев для и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На Сахалине добыли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гля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уголь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региона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вышла на показатель добычи почти в 11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Итог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расли региона обсудили на коллег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 Угольная отрасль на Сахалине показывает хорошую динамику развития. В 2018 год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7-ым добыча угля выросла на 40 процентов, налоговые отчисления предприятий увеличились на треть. Сегодня мы являемся лидером по добыче и экспорту угл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той высокой планки надо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и в дальнейшем, – отметил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В 2018 году добычу угля на Сахалине вели 9 организаций в 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Абсолютный лидер по извлечению из недр «черного золота» –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свыше 8,8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или 80 процентов от всего объема добычи по области). Чуть более 1 миллиона тонн или 10 процентов добыто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856 и 60 тонн –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ах.

В этом году угледобыва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Сахалина планируют достичь показателя в 11,4 миллиона тонн.

Еще одна положительная тенденция – значительное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ов экспортируемого угля. Если в 2017 году на экспорт ушло 7,5 миллионов тонн, то в 2018 году – уже более 10 миллионов тонн. Сахалинский уголь сего-

дня активно покупают страны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Китай, Южная Корея и Таиланд. Одним из факторов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и топлива является его высокая калорийность.

По-прежнему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задач для отрасли оста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бесперебойных поставок угля на объекты энергетики и коммунальной сфе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коллегии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напомн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жесткого соблюдения графиков доставки топлива. При этом, он обратил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важность неукоснительного выполнения требовани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собенно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перевалочных работ в портах.

## На благо человеку: как развивается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егодня

Средня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50 000 рублей. Почти на 6 тыс рублей больше зарабатывает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житель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сравнению со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им россиянином.

По данным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средня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оставила 49797 рублей (рост 10,8%), тогда как по России – 43 400 рублей (рост 9,9%).

Такой разрыв не случаен.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где уже сегодня приняты особые 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инвесторов и созданы особ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ся модель масштабного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ост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России составил 2,9% (2,1% в 2017 году) с 2,1%. Свою лепту в эти показатели внесли и регионы ДФО.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ый раньше отставал от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о некоторым показателям, постепенно начинает приносить плоды. Отмечается заметный рост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2018 году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был в полтора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России – индекс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итогам года составил 104,4%.

Все больше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ний рассматривают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как площадку для развития своего бизнеса. В регионах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сентябре 2017 года в Приморь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российское дочернее предприятие индийской KGK Group,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потребителей алмазов «Алроса», открыло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 обработке алмазов. Следом еще одна индийская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M.Suresh, оценив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первопроходца-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выразила желание открыть в 2020 году аналогич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M.Suresh у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а в России ООО «М.Суреш Владивосток», которо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лучило статус резидента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Резиденты взяли во внимание и экол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К примеру, компания «Тапир-ЭКО» запустила в Комсомольске-на-Амуре линию по безотходной переработке покрышек. Руководство компании подсчитало, что только старые шины, разбросанные в черте города и пригороде, дадут предприятию работу на пять лет.

Вице-премьер и полпред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подводя итоги минувшего года,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объем накопленных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достиг 3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составило 32% от всех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поступивших за пять лет.

Это внушительная цифра, однако, ради объективности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о «средняя температура по палате». У каждого региона ДФО свои успехи и неудачи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Опять же, нужно учитывать, что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территор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метно расширилась за счет включения в ее состав Бурятии и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которые относятся к экономически депрессивным территориям.

##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оазис: как льготы для бизнеса рождают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Бизнес потянулся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ивлеченный различными льготами, которы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тав резидентам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или же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СПВ). Благодаря улучшающемуся на глазах инвестиционному климату, уже сейчас свыше 60 тыс.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ходе развития СВП.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отмечает, что для улучш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ДФО принято 39 федеральных законов и 167 ак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лож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возможности в разы уменьшить себе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а и срок возврата инвестиций, даже с оглядкой на отдаленность региона от более экономически развитой части России.

Статус порто-франко позволяет встать как бы в стороне от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Режим СПВ – это продолжение идей, которые был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заложены в ТОР. Созданная в 2015 году в Приморье беспшленная зона ввоза и вывоза товара быстро привлекла внимание соседних регионов, имеющих гавани.

Постепенно режим СПВ распространился на Хабаровский, Камчатский края,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В текущем году заявка поступила и от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ая рассчитывает получить статус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для своей столицы – Благовещенска.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региона России, находящийс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Резиденты СПВ получают целый букет преференций: от сниж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барьеров до получения налоговых льгот и упрощения таможенных и визовых процедур. Это не может не привлек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орских пор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бассейна и Восточной Арктики, которая утверждена протоколом засед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транспорту в марте 2018 года.

Свой вклад в экономику ДФО вносят и резиденты ТОР. В март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еще двух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для двух новы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 Бурятии и Забайкальском кра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оздано 20 ТОР, в которых инвесторы реализуют свыше 1,5 тыс. проектов.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уже введено работу 195 предприятий,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Н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созданные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стали солидны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источником финансовых вливаний в бюджеты разных уровней. Только за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тупления налогов по регионам ДФО выросли на 24% до 94 млрд рублей. Региональные бюджеты пополнились за это время на 22 млрд рублей. ТОР дали новый стимул для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их моногород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66 моногородах составили 2,3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нная в 2016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ТОР «Южная», как ожидается, позволит региону со временем перейти на полное самообеспечен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ей. Резидент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3,8 тыс. коров, планирует занять до 36% рынка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Сахалине. Свиновод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в селе Таранай Анивск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ю 6 тыс. тонн мяса, трудоустроил 160 человек, позволил на треть увелич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свинины в регионе, а также снизить цены на мясную продукцию.

Жители Чукотки, оценив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возможности, стали создавать в ТОР малые предприят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на нужды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Один из резидентов начал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из оленины, дичи, рыбы и дикоросов, открыл молочную кухню. Выпуск собственных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 немаловажный момент для региона, гд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в основном завозятся с материка. Особая проблема для северной территории – дефицит овощей. Поэтому было запущено несколько тепличных проектов,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преференции позволили вложить высвободившиеся средства в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Развитие села Малокурильское на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также связано с новыми производствами в ТОР «Курилы». К 2020 году будет введе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завод по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тресковых и лососевых пород рыб, два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х морозильных завода, склад на 15 тысяч тонн единовременного хранения продукции.

Еще один рычаг для экономики был использова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гда был введен интернет-сервис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морских участков для аквакультуры. С его помощью реализовано право пользования 39 участками, площадью около 9 тыс. га.

Это немаловаж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экономики ДФО. Предприятия аквакультуры Приморья в 2018 году увеличили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сравнении с 2017 годом на 38%, до 13,2 тыс. тонн. Добыча приморского гребешка составила почти 4 тыс. тонн,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трепанга – 2,4 тыс. тонны, тихоокеанской мидии – 733 тонны, устрицы – 1,2 тыс. тонн, японской ламинарии – 4,6 тыс. тонн, морского ежа – 155 тонн и 15 тонн прочих беспозвоночных. Часть из этих продуктов пошло на экспорт, часть – на стол россиянам.

Приморским хозяйствам аквакультуры предоставлено 268 рыболовных участков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более 65 тысяч г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여성독립운동 서울전] ①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사랑 모를소냐"

(전호의 계속)



'경고 아부인동포라, 우리의 부인 동포들에게 경고한다' 'Our Female Comrades, be Warned!' A news article



건물 표지판 [한민족문화대백과(좌) · 연합뉴스] 여성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김마리아(1892~1944)다.

그는 1919년 애국부인회를 전국 조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 부인도 국민 중의 일분자다. 국권과 인권을 회복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후퇴할 수 없다"는 취지문을 발표해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운동 단체임을 명백히 밝혔다.

부인회는 상하이 임정에 군자금 전달하거나 투옥된 독립운동가의 뒷바라지 등에도 힘썼다. 그 일로 체포돼 옥살이한 그는 1921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의정원의 황해도 대의원으로 선출돼 활약했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1928년 여성 유학생들을 모아 독립운동 단체인 '근화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1934년 귀국 후 원산의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서 종교 모임과 강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 오다 일제에 의한 고문 후유증으로 1944년 순국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3·1운동 직전에 만주지역에서는 1천335자로 작성된 '대한독립여자선언서'가 발표됐다. 국가기독원은 이 선언서를 3·1운동 이전에 발표된 여성들의 첫 독립선언서로 평가하고 있다.

선언서는 "유정(有情)한 남자들은 각처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들은 그중에서 기와(起臥)하면서 무지몽매하고 신체가 허약한 여자의 일단이나 같은 국민 같은 양심의 소유자이므로 주저함이 없이, 살아서는 독립기 아래서 활기 있는 새 국민이 되고, 죽어서는 구천하에서 수많은 선철을 찾아가 모시는 것이 우리의 제일가는 의무이므로, 동포여 빨리 분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선언서는 여성 자신이 독립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모두 동참할 것을 권하는 일종의 격문으로 김인중, 김숙경, 김오경, 고순경, 김숙원, 최영자, 박봉희, 이정숙 등이 서명했다.

이처럼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자각하여 결사체를 만들고 힘을 결집한 경험은 후에 독립운동의 길에서 중요한 활동의 자양분이 되었다. 여성들은 무장투쟁뿐만 아니라 독립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농민계몽의 길에 나섰고 여권 신장과 노동운동에도 앞장섰다. 이 모든 노력은 오로지 한 곳을 향했는데 바로 대한의 독립이었다.

(계속)

(출처: 연합뉴스)

# 한상 리딩CEO 하경서 회장, '글로벌한상드림'에 기부 아름다운 전통 이어가



엘살바도르 한상 리딩CEO 하경서 까이 사그룹 회장은 29일 (금), 한상들로 구성

된 사회공헌재단인 '글로벌한상드림'에 미화 5만 달러의 기부금을 쾌척했다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밝혔다.

이날 오후 12시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취 오찬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은 하경서 회장과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글로벌한상드림 홍명기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하경서 회장(엘살바도르, 1962)



엘살바도르 CAISA그룹 회장 (Textile, Yarn, Packaging, Coffee Plantations, etc.)

가로보 프로그램을 통한 미혼모 직업 교육, 장학금 제공 및 고아원 후원

엘살바도르 싸이클 국가대표팀 후원

엘살바도르 국회 Noble Amigo de El Salvador (엘살바도르의 고귀한 친구) 상 수상

국민훈장 석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남미한인회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베트남 컨터 한-베 함께 돌봄센터 후원 계획

※ 가로보 프로그램은 미혼모, 고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1~2년 간 실습 기회를 제공해 봉제기술, 의류 디자인, 제품 개발 등을 익히도록 하여 사회로 진출할 수 있

글로벌한상드림은 국내 차세대 한민족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6년 재외동포 한상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이다.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드림서포터즈'와 취약계층 청년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꿈을 잇다'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한민족 청년들을 후원하고 있다.

역대 기부자로는 글로벌한상드림 이사장인 홍명기 듀라코트 회장을 비롯해 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 송창근 KMK 글로벌스포츠그룹 회장, 임도재 글로벌텍엔지니어링 회장, 이숙진 제마이홀딩스 회장, 박기출 PG홀딩스 그룹 회장, 정영수 CJ그룹 고문, 김점배 (주)천관 회장 등이 있다.

이번 하경서 회장의 기부로 현재까지 총 11억 원의 장학 기금이 모였으며, 글로벌한상드림은 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경서 리딩CEO의 기부로 글로벌 한상 리더들은 글로벌한상드림을 통해 기부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매년 이어가고 있다.

하경서 회장은 "100년 전 선배 한상(韓商)이 모국을 위해 헌신한 것을 본받아 우리 한상(韓商)이 모국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한우성 이사장은 "하경서 회장의 기부처럼 글로벌 한상들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되길 기대하며, 도움을 받은 차세대 청년들은 세계 속 리더로 성장하여 자신의 다음 세대까지 이 전통을 계속 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2019.03.19)

#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 · (3) '유골 봉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확한 신원 확인 '정당성' 확보로... '아픔의 역사 재발방지' 뜻 기려야

(3면의 계속)

피해자 대개 해외서 화장돼 보관 현지 관공서 통해 '1차 신원 증명' 국내서 기록 조회·유전자 대조 등 공신력 갖춘 공적기관 역할 필수

대일 항쟁기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유골을 봉환해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될 'DMZ 평화공원'에 안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성을 확보할 온전한 '유골봉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정확히 이뤄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유골이 돌아와야만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유골 봉환의 참뜻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골'은 땅속에 묻힌 시신 상태인 '유해'와 달리,

대개 화장(火葬)을 거쳐 유골함에 보관된 상태다. 일본의 경우, 이 유골함에 당사자의 나이와 주소·사망일자 등 기록한 '과거장'을 함께 보관하고 있다. 사찰에 보관된 과거장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신원은 1차적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일본의 관공서를 통해 화장 과정을 증명할 매화장인허증, 사망자 원적지 확인 등을 거치면 현지에서의 피해자 확인은 거의 마무리 된다.

국외에서의 신원 확인이 끝나면 남은 것은 국내 증명이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국내에 남아 있는 피해자 기록을 조회하고, 필요하면 후손들과의 유전자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공적 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대일항쟁기 위원회(3월

15일자 3면 보도)에는 22만건 이상의 강제동원 피해 신고와 34만건의 피해조사 자료가 남겨져 있다.

이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국내 행적을 증명할 수 있지만,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문을 닫으며 이 귀중한 자료는 활용되지 않은 채 모두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나서 피해접수를 한 후손들의 유전자를 채취, 보관해줘야 추후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과의 신원 대조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공신력을 지니지 못한 민간에서 소화하기 힘든 작업이다.

이처럼 국외·국내의 확인 절차가 확실해야 유골 봉환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골봉환 작업을 해 온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회장은 "최근 일부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골을 봉환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원혼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유골봉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인일보, 2019.03.19)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Неработающие пенсионеры старше 65 лет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портивных,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и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СО.

Сейчас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занимаются в гимнастических и тренажерных залах. В теплое время года они смогут осваивать финскую ходьбу, а в декабре — встать на беговые и горные лыж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енсионеры также получили бесплатный доступ в семь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Чехов-центр, областную филармонию,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ботанический парк,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и,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и киноконцертный зал "Комсомолец". По картам, которые выдаются участникам "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лголетия",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выставки, концерты и спектакли

Участие в новом проекте доступно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еработающих пенсионер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65 лет. Всего полезным начинанием будет охвачено более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ля участия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Пуркаева, 80.

## <총체적 받아쓰기>대회에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을 초대한다

<총체적 받아쓰기>국제교육행사에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의 참가를 권한다. 신청등록은 4월 3일에 시작됐다.

올해는 모두가 러시아 작가, 평론가이며 문학연구자인 파벨 바신스키를 본문으로 하는 기초지식을 시험할 예정이다. <사할린 섬>체호브 책 박물관에서는 극장의 해를 맞아 본문을 체호브센터의 알렉산드르 아르제예브 수석 감독이 낭독한다.

이 행사는 4월 13일 16:00시에 시작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4개 행사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참가자들은 <총체적 받아쓰기> 쓰기가 편한 곳(체호브 책 박물관, <승리>박물관, <러시아는 나의 역사>기념공원, <케비 브리지>영어교육센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할린주 내 노글리키, 토마리, 쿠릴스크, 포로나이스크와 우글레고르스크에서도 받아쓰기를 진행한다. 행사 참가를 위해 <총체적 받아쓰기> 사이트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총체적 받아쓰기>는 연례행사로써 연령, 민족과 관계없이 누구든 러시아어 지식을 검증할 수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 행사는 8번째 진행된다.

##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зовут на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акции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нее открылась 3 апреля.

В этом году все будут проверять грамотность по тексту рос-

си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критика и литературоведа Павла Басинского. В честь Года театра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текст будет читать худрук Чехов-центра Александр Агеев.

Акция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13 апреля, начало в 16:0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а пройдет на четырех площадках —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выбрать для себя, где ему удобнее писать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в музее «Победа»,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или учебном центре «КБ Бридж». Кроме то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иктант напишут в Ногликах, Томари, Курильске, Поронайске и Углегорске. Для участия в акции нуж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сайте «Тотального диктанта».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 ежегодная акция,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человек любого возраста и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может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зн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е проведут уже восьмой раз.

## 사할린주, 중소지역 중 근로자 임금 5 순위에 올랐다

<레이팅>러시아통신사는 4월 2일 러시아의 중소지역들에서 근로자임금 목록을 발표했다. 사할린주는 소득률은 5위에 올랐고 주민의 평균임금은 6만4200루블리에 해당됐다. 2018년 사할린지역에서 임금 상승률은 10,7%였다.

근로자 평균임금1위는 야말로-네네츠자치구가 차지하여 월 평균임금이 8만6100루블리다. 2위는 네네츠자치구로 7만9200루블리, 3위 마가단은 8만1400루블리, 4위는 한티-만시이스크-유그라는 6만5600루블리에 해당됐다.

우수 상위순위에는 러시아 북부지역이 올랐고 남부지역들은 하위에 있었다. 하위 마지막에는 체첸공화국이 81번째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만400루블리였다.

이 평균임금 순위는 인구가 20만 명 이하인 도시와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5 по зарплате в небольш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РИА «Рейтинг» 2 апреля опубликовало список зарплат в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 величине дохода заняла пятое место, средний заработок на местного жителя в регионе составляет 64,2 тысячи рублей.

За 2018 год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тмечен прирост заработных плат на 10,7 процента. Вершину списка занял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со средне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ой в 86,1 тысячи рублей. Затем идет 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79,2 тысячи рублей).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81,4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а четвертом месте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 Югра (65,6 тысячи рублей).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заняла северная часть России. Аутсайдерами стали южные регионы. Последней в списке идет Чечен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которая заняла 81-е место со средним заработком в 20,4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рейтинг были включены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где живут менее 200 тысяч человек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 · 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공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량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시시오.

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